

**환경부장관 박결호 차관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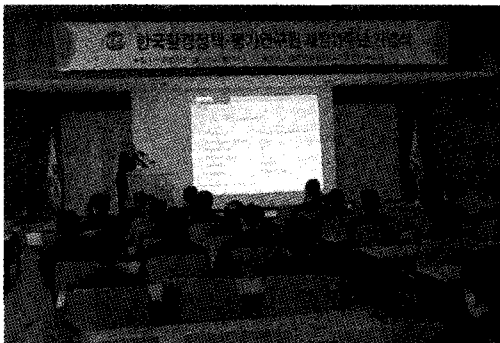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후임에 박결호(58) 현 차관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박 신임 장관은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최초로 환경부 안에서 발탁된 장관"이라며 "건설과 환경분야 근무 경험을 통해 균형된 시각을 겸비해 앞으로 미래지향적 환경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신임 장관은 대구 달성 출신으로 부산공고와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KEI, 개원 11주년 기념식 개최**



환경분야 유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지난 1월 29일 연구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녹색연합 바닷모래 기자회견**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월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바닷모래 채취업체의 집단적인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실'을 고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01년 7월부터 동일한 업체가 한 광구에서 햇수(年數)와 관계없이 50만㎡이상 바닷모래를 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의무사항이나 일부 해사채취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서울 환경신문고 신고 11% 증가**

서울시는 지난해 '환경신문고'를 통한 환경오염 행위 신고건수가 모두 8만215건(하루 평균 219건)으로, 전년의 7만2천298건(하루 평균 198건)보다 11.0%(7천917건)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가 1996년부터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 제도는 자동차 매연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 '128' 환경오염신고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 최고 1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지난해 신고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대기분야가 78.9%인 6만3천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물 19.6%(1만5천798건), 수질 0.3%(240건) 등의 순이다.

**2004년도 에너지절약시책 종합설명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이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 「2004 에너지절약시책 종합설명회」가 지역 산업체 및 건물분야 에너지중사자들과 에너지담당 공무원 등 총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성황을 이루었다.

## 인천시, 폐형광등·비닐포장재 분리배출

인천시 서구는 올해부터 폐형광등 및 비닐포장재(필름류)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폐형광등의 경우 수거함 설치장소 또는 매주 수요일에, 비닐포장재(필름류)는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배출시에 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 Eco-Academy 제3기 교육생 모집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제3기 Eco-Academy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작년 제2기 교육생에 이어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3월 8일까지이다.

##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교재 제작 배포

환경부는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 경기 부평구, 폐품이용 작품 공모

인천시 부평구가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확

산과 재활용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 공모전을 3월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시행

경기도가 올해부터 철새도래지 내 농민들이 재배한 곡물을 사들여 철새먹이로 남겨놓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달서구청, 쓰레기 취약지 전담반 구성

대구 달서구청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자 지난 2월부터 쓰레기 취약지 청소전담반을 구성했다.

## 대한상공,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계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25일 대한상의 제1회의실에서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 참여 압력이 앞서 작년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를 되돌아보고, 기업의 교토메카니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환경부, 인사

▣ 과장급(04. 2.12일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직무대리 서기관 김영훈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 보함

▶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장 서기관 김성봉

## 환 · 경 · 계 · 소 · 식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장에 포함

▶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장 시설서기관 변주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에 포함

▶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장 서기관 이성한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장에 포함

▶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서기관 김낙빈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장에 포함

▶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장 서기관 이정섭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장에 포함

▶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서기관 이효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 국립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직무대리 서기관 김수년 국립환경연구원 총무과장에 포함

### ■ 국장급(04. 2. 3일자)

▶ 환경부 이사관 손희만 국방대학교(안보과정) 교육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2004. 2. 3 ~ 2005. 2. 2)

▶ 환경부 부이사관 전태봉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2004. 2. 3 ~ 2005. 2. 2)

### ■ 과장급(04.2.2일자)

▶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부이사관 송재용 총무과장에 포함.

▶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 시설서기관 백규석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에 포함.

### ■ 4급승진(04. 2. 6일자)

▶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행정사무관 황계영 서기관에 임함

▶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환경사무관 서홍원 환경서기관에 임함

▶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화공사무관 김정호 공업서기관에 임함

### ■ 6급이하(04. 2. 9일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 ▷김장현 경인지방환경청 행정주사 서부광 국립환경연구원 근무를 명함.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서기 이명순 한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 원주지방환경청 행정서기보 성윤식 낙동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 금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보 이영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주사 김유범 경인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 경인지방환경청 환경주사 오원범 ▷대구지방환경청 행정주사 조재미 원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 최동섭 ▷원주지방환경청 행정주사보 서제호 대구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 경기환경그린대상 6개업체 선정

경기도는 환경관리 기반조성과 친환경적 기업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4회 경기환경그린대상' 수상 업체로 삼성전자 (주)수원사업장 등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도는 인허가 등록을 마친 도내 소재 3년 이상 업체 중 환경의식이 높은 16개 업체를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사전조회와 공적내용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수상업체를 선정했다.

수상업체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심사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수상업체는 수질1종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여주공장, 수질2종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 수질5종 (주)잉크테크, 대기2종 LG전선(주) 안양공장, 대기3종 한라공조(주), 대기5종 한국코스타(주) 등이다. [중부일보]

## 낙동강환경청 상반기 환경교육 확정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군부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환경교육 계획을 확정했다.

최근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전문가와 환경운동실천가, 환경원로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환경교육홍보단의 환경강사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2월 말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

환경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와 군부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에서 낙동강환경청은 환경강의는 물론 초·중학생을 위한 체험교육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환경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청소년환경교실에서는 숲의 구성 및 유지원리를 알아보고 동·식물 탐구를 하는 숲생태계조사와 습지의 역할과 수서생물 관찰, 갯벌 물새탐조 등 습지생태계조사, 하수처리장과 환경친화기업 등 환경관련시설을 견학하는 체험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 주부와 노인, 농어민, 장애인, 종교인 등 직능별 시민강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재활용 및 물 절약 등 환경보전실천교육도 담당한다.

##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생태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경기도 안산시는 경기침체와 입주기업 해외 이

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반월·시화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 환경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市)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에 산재한 490개 산업단지를 친환경산업단지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전국 3개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 명예 환경감시원이 기업협박 돈 뜯어

환경보호와 감시활동에 힘써야 할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렵금지구역에서 사격행위를 하다 적발돼 불명예 퇴출됐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3일 주민 스스로 지역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가운데 일부가 비위를 저질러 감시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역 명예환경감시원 이 아무개(45)씨와 최 아무개(36)씨는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수렵금지구역에서 공기총으로 사격을 하다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평택지역 감시원 최아무개(68)씨는 지난해 8월 기업체를 찾아가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와 함께 자격을 박탈당했다.

## 시 보조금 횡령 환경단체 간부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시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환경단체 인천시 지부장 A(53)씨를 구속했다.

## 환 · 경 · 계 · 소 · 식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1월 공공근로 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9천730만원 중 6천233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 환경상품·GR협회 합동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원총희 대표 선출

환경부 사단법인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 제9차 정기총회와 산업자원부 사단법인 GR협회 제4차 합동정기총회가 지난 1월 27일 오전 성수동 라성 부패 특실에서 개최됐다.

양 협에 따르면 올해 주요사업 계획은 ▲공공기관의 환경상품의 구매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한 전문홍보관 개설확대 ▲유통망 구축·지원사업 ▲대국민 구매 마케팅 강화 및 해외 전시회 주관참여 추진 등이다.

특히 협회는 환경상품 생산업체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해 세제 감면혜택 및 판매 활성화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관철시킨다는 의지다.

### 해외 환경마크 인증지원 안내

환경마크협회는 2004년 1월 현재 아래와 같이 6개국의 해외 에코라벨링 운영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에코라벨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에코마크, 중국 환경표지, 대만 그린마크, 태국 그린라벨, 북유럽 Nordic Swan, 호주 Good Environmental Choice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국제협력사업->해외진출사업->해외 에코라벨 인증지원 안내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 인천시, 환경미래관 자문단 위촉

오는 10월 착공될 환경미래관 건립에 대한 자문단이 구성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9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이성욱 시의원, 김기룡 시교육청 장학사,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 서울시, 우수 재활용품수집업체에 장려금

서울시는 올해 우수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고철·폐지·플라스틱류 등을 수집·운반하는 재활용품 민간수집상이며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평가해 25개 업체에 우수상과 상금 200만원씩을 수여하는 등 총 125개 업체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 발포스티렌협회장에 신호유화 황규익 사장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지난달 23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호유화 황규익(黃圭億) 사장을 협회장으로 선임하고 2003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04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이 협회장에 선임된 황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대한전선을 거쳐 신호유화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전무로 재직하였으며 한국타포린(주)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신호유화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